

노자가 전하는 갈등해결의 지혜

I. 들어가면서

II. 갈등 해결의 기본 삼(三) 요소

1. 검소(儉)
2. 자애로움(慈)
3. 감히 앞에 나서지 않는 겸손함
(不敢爲天下先: 불감위천하선)

III. 갈등 해결의 궁극

1. 객관성과 공정성(中)
2.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는 조화(和)

IV. 지나친 법과 제도의 세분화 반대(不言之論: 불언)

V. 신뢰(信)

VI. 신중함(慎)

VII. 나오면서



안 성 재

한국수사학회 총무이사
(인천대 교육대학원 부교수)

노자가 전하는 갈등해결의 지혜

I. 들어가면서

노자(老子)의 유일한 저서로 알려진 『도덕경(道德經)』은 그간 무위자연(無爲自然) 즉 억지로 작위하지 말고 자연으로 귀의하라는 독특한 인생과 처세술이 내포된 철학서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 『도덕경』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5천여 자로 기록한, 고대 중국의 통치이념서적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그리고 노자는 그 핵심을 ‘나’와 ‘너’를 편 가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우리’라는 개념의 대동(大同)사회로의 복귀에 두었다.

이렇듯 노자의 『도덕경』은 비록 그 취지가 한 나라의 최고통치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이제 이를 오늘날 극도의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현대사회에 응용해본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총 81장으로 구성된 『도덕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노자가 과연 이 첨예한 대립속의 현대사회 갈등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나아가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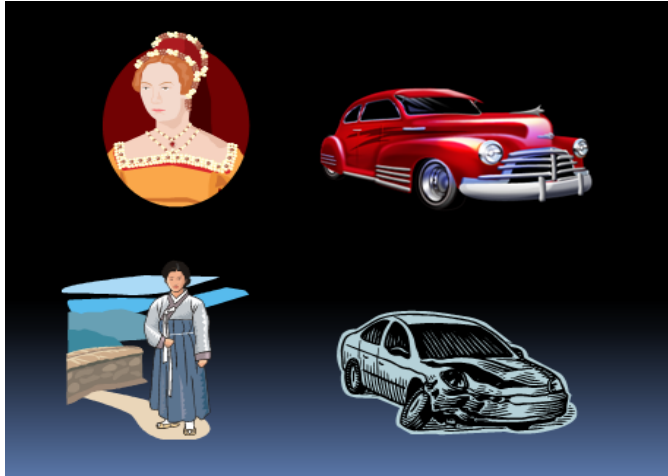
II. 갈등 해결의 기본 삼(三) 요소

1. 검소(儉)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포장되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다른 이보다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라는 욕망에 부채질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해왔다.

덕분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이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너무나도 보편타당한 진리로 각인되어졌고, 가진 이들은 더욱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

은 가진 이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제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만약 가진 이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과시하느라 바쁘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과연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푸념하며 현실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기를 쓰고 그들 흉내를 내려고 할까?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한 세상이 되어버릴까?

그러므로 노자는 이야기한다. “어떠한 것을 자신을 중시하는 것처럼 큰 재앙을 중시한다고 이르는가? 내게 큰 재앙이 있는 것은, 나 자신만을 돌보기 때문이다. 이에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재앙이 있을 수 있겠는가?(13장) 화려한 색은 사람의 눈을 어지럽히고, 번잡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영활하지 못하게 하며, 푸짐한 음식은 사람의 미각을 상하게 하고,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하는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며, 희소한 물건은 사람으로 하여금 규칙을 어기게 한다(12장). 그러므로 탐욕이 없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평정을 되찾게 되니, 세상은 장차 스스로 안정되게 될 것이다(37장).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 곤욕스럽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험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오래할 수 있는 길이다(44장).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저 화려한 비단을 입고, 날카로운 검을 차며, 음식에 빠지고, 재물은 넘쳐난다. 이를 일컬어서 남의 것을 훔쳐서 자랑한다고 하니, 이것은 도가 아니다!(53장)”

2. 자애로움(慈)



현대사회에는 자기중심주의 풍조가 만연해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는 관대하고도 너그럽게 대하지만 오히려 자기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을 때 비로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니,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중하니 그것은 마치 포용하는 듯하다(15장). 유약함이 강직함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36장). 하지만 이와 반대로 포악한 자는 비명횡사하게 되니, 나는 장차 그림으로써 가르침의 규범을 삼는다(42장). 세상의 지극히 유약한 것이, 세상의 지극히 단단한 것을 제어한다(43장).


그러므로 세밀한 것을 관찰하는 것을 밝음이라 이르고, 연약한 것을 지키는 것을 진정한 강함이라고 일컫는다(52장). 무릇 자애로움이란, 그것으로서 전쟁에 쓰면 곧 승리하고, 그것으로서 수비에 쓰면 곧 견고해진다. 하늘이 장차 그를 구원하려 하면, 자애로움으로 그를 지킨다(67장). 그러므로 필적하는 군대가 서로 맞부딪히면, 자애로운 쪽이 이긴다(69장).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연하지만, 죽으면 뻣뻣해진다. 만물의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강경한 것은 죽음의 부류에 속하고, 연약한 것은 삶의 부류에 속한다. 이 때문에 무력으로 강박하면 곧 패배하고, 나무가 단단하면 곧 쓰임이 있게 되니 제 삶을 다할 수 없다. 강대함은 아래에 처하고, 부드러움이 위에 처한다(76장). 이를 물로 비유하자면, 세상에는 물보다 연약한 것이 없지만, 강경한 것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연약한 것이 강경한 것을 이기는데, 세상에는 모르는 이가 없지만, 능히 행하는 자가 없도다(78장).”

3. 감히 앞에 나서지 않는 겸손함(不敢爲天下先: 불감위천하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도 당연시되는 사회풍조에서는 영원히 같

등이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타인을 위로 올리고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며 아래로 끌어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갈등 해소의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김구(金九)선생



삼천만 동포의 가슴에서
칠천만 겨레의 큰 스승..

- **우리나라가 자주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리고 김구 선생이 등장한다. 왜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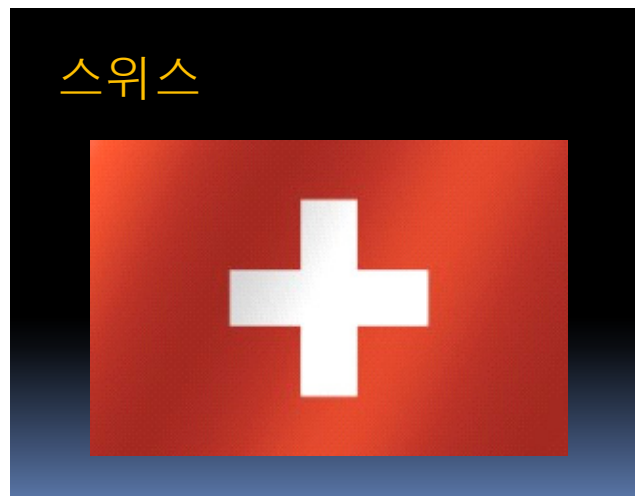
그 이유에 대해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자기를 남의 뒤에 두지만 자기가 남보다 앞서게 되고, 자기를 도외시하지만 자기를 보존할 수 있다. 자기를 사사로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오히려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7장). 최고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아래로 흐르면서 만물을 편리하게 하지, 결코 그들과 다투지 않는다. 이처럼 말없이 많은 이들이 싫어하는 아래쪽에 머물기에, 그러므로 도에 근접한다(8장). 공을 이루면 자신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일지니(9장). 자신의 안목에만 의존하는 이는 명확하게 볼 수 없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는 시비를 분명히 가릴 수 없으며, 스스로 자랑하는 이는 공로가 없고, 거만한 이는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은 도에 있어서, 먹다 남은 음식이나 군더더기라고 말하여, 만물이 그들을 싫어하니, 그러므로 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24장). 따라서 귀함은 비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천자와 제후는 스스로를 고(孤: 부모 없는 아이), 과(寡: 남편 없는 아내), 불곡(不穀: 백성을 키우는 곡식보다도 못한 존재)이라고 칭

하였다. 이는 비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아니한가? 그러므로 최고의 영예에 이르면 영예가 없는 것이다. 옥과 같이 귀하기보다는, 차라리 돌과 같이 단단한 것이 낫다(39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 과, 불곡이나, 천자와 제후는 그것으로써 호칭을 삼았다(42장). 모성의 부드러움이 항상 고요함으로 부성의 강함을 제압하는 것은, 고요함으로 아래에 처하기 때문이다(61장).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강과 바다가 능숙하게 계곡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백성의 위에 처하려면, 반드시 말을 함에 있어 백성에게 낮춰야 하고, 백성을 영도하려면, 반드시 몸을 백성들 뒤에 두어야 한다(66장).”

Ⅲ. 갈등 해결의 궁극

1. 객관성과 공정성(中)

중간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정 가운데 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모두 수렴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국가들은 남쪽을 지지했고, 반면에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쪽을 지지했다. 그리고 또 세계에는 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쪽에도 편입되지 않는 소위 ‘중립국’을 표방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인데, 이 나라는 과연 한국전쟁에서 어느 쪽을 지지했을까? 분명한 점 한 가지는, 스위스는 당시 한국에 물자를 지원한 우리의 우방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스위스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을 때, 피해국이 한국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중(中)이라는 것이 그만큼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또 중(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여 최종적으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이야기한다. “말과 명령이 많으면 누차 곤궁해지니, 중간을 지키는 것이 낫다(5장). 관직을 줌에 있어서 공정하게 관찰하고도 통달함에 있어, 결점이 없을 수 있는가?(10장) 총애함과 모욕에 마치 놀란 듯 하는 것은, 자신을 중시하는 것처럼 큰 재앙을 중시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을 총애를 얻음과 굴욕을 받음에 놀란듯하다고 일컫는가하니, 총애를 얻음은 아래에 있는 하등의 것이다. 총애를 얻음에 놀라는 듯하고, 그것을 잃음에 놀리는 듯하니, 이를 총애를 얻음과 굴욕을 얻음에 놀라는듯하다고 이른다(13장). 하늘의 도리는 그것이 마치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 조준한 것이 높으면 그것을 낮추고, 낮으면 그것을 높여주며, 힘이 남으면 그것을 덜어주고,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해준다. 따라서 하늘의 도리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함을 보충해준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도리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함을 착취하여 그림으로써 남는 것을 돕는다. 그렇다면 누가 풍족함으로써 세상을 돕고 받을 수 있겠는가? 도가 있는 자이다(77장).”

2.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는 조화(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한때 널리 인구에 회자되던 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말에 뜨거운 환호로 화답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고개를 돌리면 다시 냉혹한 현실. 실제로 한국은 1등만을 인정하고 금메달만을 대우해주는 풍토가 고착화된 지 이미 오래다. 이른바 우성인자만을 키우고 인정하며 열성인자는 도태시키고 경

시하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무한 경쟁’이라는 장점도 부각되기는 하지만, 그만큼 몰인정한 세태를 부추기는 더 큰 부조리를 불러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1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2등이 있기 때문이고, 2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3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던 것일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만일 우리가 일류 야구팀을 만들기 위해서 요새 가장 ‘잘나가는’ 류현진 선수를 모든 포지션에 세우게 된다면, 이 팀이 정말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을까? 또 일류 축구팀을 만들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모든 포지션에 세우면, 정말 이 팀은 불패의 팀이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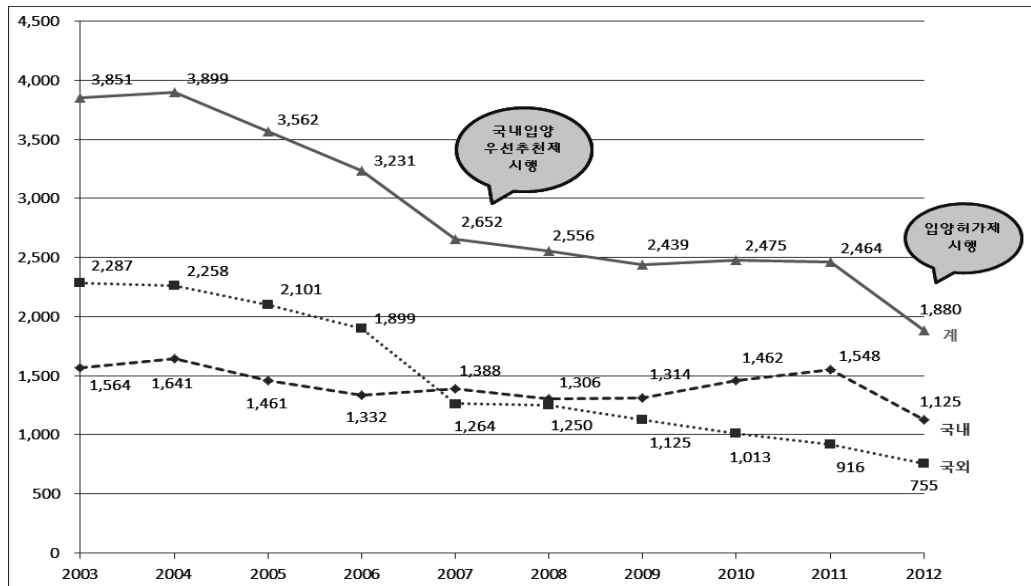
그러므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를 아는 것, 이는 바로 추함이 있기 때문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아는 것, 이는 선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함께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이 함께 형성되며, 길고 짧음이 함께 견주고, 높고 낮음이 함께 기울며, 소리와 음률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가 함께 따른다(2장). 이처럼 하면, 그 날카로움을 억누르게 하고, 그 분규를 해결하며, 그 광채를 조화롭게 하고, 그 속세와 한데 어우러진다(4장).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는 장구히 존재한다. 하지만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장구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7장). 예를 들어서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였는데, 바퀴통 속이 비어있어야 수레의 작용이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 그릇의 쓰임이 있다. 창문을 내어 집을 짓는데, 집에 빈 공간

을 만들어야 집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있음으로써 이롭게 되고, 없음으로써 쓰이게 되는 것이다(11장). 이 때문에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제하여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항상 사물을 잘 바로잡아서 버려지는 사물이 없다. 그러므로 선량한 이는 선량하지 못한 이의 스승이고 선량하지 못한 이는 선량한 이의 밑바탕이다.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밑바탕을 사랑하지 않으면, 스스로 총명한 이라도 어리석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오묘한 도리라고 한다(27장). 따라서 그 강함을 알고, 그 부드러움을 지키면, 개울이 되어서 세상이 모두 귀속한다. 그 밝음을 알고, 그 어두움을 지키면, 세상의 규범이 된다. 그 영화로움을 알고, 그 치욕을 감수하여 아래에 처하는 자세를 지키면, 세상이 모두 그에게 귀속한다(28장). 즉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으로 향하며, 음과 양의 기운이 충돌하여 그럼으로써 조화롭게 되는 것이다(42장). 그러므로 선량한 자는 내가 그를 선량하게 대하고, 선량하지 못한 자도 내가 그를 선량하게 대하면, 품행이 선해진다. 믿을 수 있는 자는 내가 그를 신임하고, 믿을 수 없는 자도 내가 그를 신임하면, 품행에 신의가 있게 된다(49장). 사람이 아름답거나 훌륭하지 못하다고 해서, 어찌 그를 버릴 수 있겠는가? 예부터 이러한 도를 귀히 여김은 어찌된 것인가? 아름다운 말을 말하지 않아도 연음을 구할 수 있고, 고귀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귀히 여긴다(62장).”

IV. 지나친 법과 제도의 세분화 반대(不_言: 불언)

대한민국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법과 제도가 존재할까?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과연 또 몇이나 될까?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인정하여 따를 수 있는 판단이 가능한 것일까?

따라서 그때그때마다의 미봉책으로 법과 제도를 자꾸 세분화하여 늘려가는 것보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 않는 가장 원칙적이고도 확고한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입양특례법의 모순〉

아마도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입양특례법’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입양특례법이란 국내입양과 아동 권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이다. 하지만 위의 보건복지부 통계표를 보면, 국외는 물론 국내입양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개입양과 엄격한 범조항들로 인해서 입양부모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또 하나의 이유는 미혼모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출생신고 의무화에 따라 친부모가 신분 노출을 꺼려 아이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아이들은 입양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입양부모를 통한 새로운 기회조차도 잡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오히려 선택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세분화된 법과 제도들을 만들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이다.

이에 노자는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억지로 작위하지 않는 무위로서 일을 처리하고, 억지로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2장). 말과 명령이 많으면 누차 곤궁해지니, 중간을 지키는 것이 낫다(5장). 따라서 지극히 공허함에 도달하고, 지극히 고요함을 견지한다. 근본으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고 하

니, 이를 복명(천명을 따름)이라고 한다. 복명을 ‘상’(변치 않음, 영원함)이라고 하고, ‘상’을 아는 것을 ‘명(밝음)’이라고 하는데, ‘상’을 알지 못하면, 경거망동하게 되고, 불행해진다(16장). 그러므로 유유하여, 말을 귀히 여기니 명령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 일이 완성되어도, 백성들은 모두 우리가 본래 이러한 것이라고 말한다(17장). 이처럼 말과 명령을 적게 하는 것이 스스로 그러하게 하는 것, 즉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러므로 광풍은 아침까지 불 수 없고, 폭우는 온종일 내릴 수 없다. 천지의 난폭함 조차도 오래갈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23장) 그러므로 불언의 가르침, 억지로 작위하지 않는 무위의 이로움, 세상에 는 이에 미치는 것이 드물다(43장).”

V. 신뢰(信)

‘믿을 신(信)’은 ‘사람 인(人)’과 ‘말씀 언(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의자(會意字)이니, 그 본래의 뜻은 ‘사람이 말한 것은 믿을 수 있다’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국의 허신(許慎)이 만든 문자 해설서인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보면, ‘믿을 신(信)’과 ‘정성 성(誠)’은 그 의미가 사실상 서로 통하는 글자로 ‘정성을 다하다’로 풀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성 성(誠)’은 다름 아닌 ‘말씀 언(言)’과 ‘이룰 성(成)’이 합쳐진 역시 회의자로,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JOHNSON&JOHNSON



-
-

JAMES BIRKE
기업윤리

소비자 > 사원 > 지역사회 > 주주

이제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망하기 전날 누군가 무작위로 청산가리를 녹여 주사기로 주입한 타이레놀을 구입해 복용했던 것이다. 이에 제조회사인 존슨 앤 존슨은 1억 달러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 세계의 모든 타이레놀을 회수하고, 상담원들을 대거 고용하여 걸려오는 문의전화를 일일이 다 받게 했으며,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해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아서, 37%를 차지했던 시장점유율은 6.5%로 급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CEO이었던 고(故) 제임스 버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품 포장기술을 개발하는데 적극 투자함으로써 액체였던 타이레놀을 오늘날의 알약으로 바꿨고, 그 결과 점유율을 29%까지 회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존슨 앤 존슨은 당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노자는 17장과 23장을 통해서 두 번이나 “신용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VI. 신중함(愼)

상술한 내용 외에도, 노자는 또 “주저하니 마치 겨울철 강을 건너는 듯하다. 망설이니 마치 사망을 두려워하는 듯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



‘미리 예(豫)’는 ‘주저하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사실 이 단어는 본래 ‘커다란 코끼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첫 문장인 ‘주저하니 마치 겨울철 강을 건너는 듯하다’는 ‘커다란 코끼리가 마치 겨울철 강을 건너는 듯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코끼리가 겨울철 강을 마구 건너겠는가? 즉 이는 그만큼 신중해야 함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히려 유(猶)’ 역시 ‘망설이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애당초 이는 ‘원숭이’를 가리켰던 단어이다. 따라서 ‘망설이니 마치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역시 본래는 ‘원숭이가 마치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하다’로 풀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 땅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경계심이 대단히 강해서 끊임없이 사방을 살펴보며 조심스레 먹거나, 금방 가로채서는 나무 위로 올라가 먹지 않던가.

따라서 오늘날의 법률용어인 ‘집행유예’는 그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니, 즉각적인 형 집행을 잠시 유보하고 시간을 두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노자는 뒤이어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신중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나아가 강조하고 있다. “진중함은 경솔함의 바탕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지배자이어서, 이 때문에 성인은 온종일 길을 가지만, 군수물자를 실은 수레 즉 무거운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솔하지 말고 진중해야 하는 것이다. 경솔하면 근본을 잃고, 경박하면 군주의 지위를 잃는다(26장). 분주함은 추위를 이기지만, 고요함은 더위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이 세상을 올바르게 한다(45장). 또한 어려운 일을 도모하려면 쉬울 때에 착수해야 하고, 큰일을 하려면 자잘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양성되고,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자잘한 데서 발생하는 법이니! 이 때문에 성인은 시종 일이 커지기를 기다렸다가 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큰일을 이룰 수 있다. 같은 원리로서 무릇 쉬이 승낙하면 반드시 실패가 적어지고, 지나치게 쉽게 보면 반드시 재난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오히려 작은 일을 알보지 않으니, 그러므로 시종 어려움이 없다(63장). 따라서 그 상황이 안정적일 때 유지하기 쉽고, 그 사건이 징조를 보이지 않을 때 도모하기가 쉬우며, 그 사물이 무를 때 해소하기가 쉽고, 그 일이 미약할 때 없어지기가 쉬우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처리하고, 중요하기 전에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와 큰 나무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생겨난다. 구층의 높은 누각은, 한 층의 흙

을 쌓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천리 길을 가는 것은 발아래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일을 함에, 항상 거의 완성될 즈음에 일을 그르치니,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신중하면, 곧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64장). 화는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적을 가벼이 보다가는 하마터면 나의 보물을 잃게 된다(69장). 이처럼 무릇 결점을 꺼리게 되면, 이 때문에 결점이 없다. 성인은 결점이 없는데, 그 결점을 결점으로 여기기에, 이 때문에 결점이 없는 것이다(71장).

VII. 나오면서

지금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오로지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심지어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배금(拜金)주의, 권력만 있으면 어떤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권력지상주의, 오로지 명문대학에 진학해야 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출세지향주의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 폐단들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며, 심지어 구성원간의 갈등까지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풍조를 지양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길은 진정 없는 것일까?

사람들은 『도덕경』의 저자를 노자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예부터 그를 도가(道家)사상 나아가 도교(道敎)의 시조로까지 숭앙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도덕경』에 기록된 노자의 말은 노자가 직접 지어낸 것이 아니라, 『상서(尙書)』 등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하여 그 핵심내용을 체계적으로 뽑아낸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자(孔子) 역시 자신만의 고유 가치관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던 사상을 오롯이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노자와 공자 두 인물은 태평성대로 가는 같은 길을 걸으며, 대동과 소강(小康)이라는 서로 다른 이상향을 바라보았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노자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노자의 대동 사회에 대한 이상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소강사회로의 복귀로 피력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차원에

서, 노자의 말로 시작한 이 글을 공자의 말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떻게?

공자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한 바 있고, 또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도 말한 바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 배워서 항상 내 것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역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습(習)’은 오늘날의 ‘익히다, 배우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날갯짓을 하여(翺: 우)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도록(自: 자)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다’라는 본연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니, 결국 이는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세상에 쉬이 얻어지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언더라도 금방 사라진다. 따라서 얻고자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초지일관하여 중간에 변치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인 노자가 전하는 갈등해결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날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나아가 변치 않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때가 되지는 않았는가?